

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보도자료	2026. 5. 15.(금) 배포 즉시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	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	김수미	☎ 760-7601
		업무담당자	한윤아	☎ 760-7631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

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높은 만족도 속 마무리

- 동부농업기술센터, 농업 정책부터 사례 공유·체험까지 종합형 교육 운영 -
- 교육 만족도·영농 도움·과정 추천 항목 응답자 전원 긍정 평가 -

-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는 신규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운영한 ‘기초영농기술교육’이 높은 참여율과 만족도를 나타내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.
- 이번 교육은 지난 4월 8일부터 5월 6일까지 총 5회(20시간) 과정으로 운영됐으며, 농업 관련 정책부터 기초 재배기술, 디지털 농업 활용법까지 신규농업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다뤘다.
- 동부농기센터는 농촌교육농장 운영 및 귀농 정착 등 선도 농가 사례를 공유해 현장 이해도를 높였으며, 학습체험 키트 실습 등 체험형 프로그램도 병행해 교육생들의 호응을 얻었다.
- 교육 신청자 45명 가운데 41명이 참여했으며, 이 중 36명이 수료하고 5명이 과정을 이수하는 등 교육 전반에 높은 참여도를 나타냈다.
- 특히 참여자의 91%가 30~50대로, 실제 영농 창업과 소득 활동이 활발한 경제활동 연령층의 높은 관심이 확인됐다.
- 이는 실제 농업 진입과 농촌 정착을 준비하는 신규농업인의 교육 수요가 충실히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.

- 교육생 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, 응답자 전원이 교육 전반에 만족한다고 답했다.
 - ‘영농 준비에 도움이 됐다’와 ‘다른 신규농업인에게 추천하겠다’는 항목에서도 모두 긍정적으로 응답해 교육의 높은 효과와 신뢰도를 입증했다.
 - 강사 만족도는 평균 94.8%를 기록했으며, 선도 농가 사례 공유 및 체험교육은 모두 100% 만족도를 나타냈다.
- 교육생들은 “실제 사례 중심 교육이 매우 유익했다”며 현장 경험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 방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.
 - 아울러 실습 교육 확대 필요성, 작목별 귀농 사례, 계절별 감귤 교육 추가 등의 다양한 발전적 의견도 제시했다.
- 한윤아 농촌자원팀장은 “이번 교육은 신규농업인이 제주 농업 환경을 이해하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내용으로 운영했다”며 “앞으로도 작목별 심화 교육과 소규모 참여형 교육을 확대해 신규농업인의 실질적인 정착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”고 강조했다.
- 한편 동부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신규농업인 과정으로 미니단호박 재배 마스터, 상추 재배 현장실습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, 향후 감귤 재배학과 감자 재배 실습 교육 과정도 추진할 예정이다.